



태권도 시범문화의 흐름과 지속 성장 가능성 탐색

이승진¹ · 전정우^{2*}

1. 경희대학교, 박사 2. 경희대학교, 교수

요약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 시범문화의 흐름을 통해 시범문화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태권도 시범문화가 가진 지속 성장 가능성 전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 태권도 시범에 관한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집단과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태권도 시범의 구성요소와 범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 시범의 문화적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의 확대, 둘째, 제도적 기반 확충, 셋째, 다양해진 시범 요소이다. 태권도 시범문화의 구성요소와 문화의 흐름 안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권도 시범문화의 주요 영역은,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와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로 나타났다.

결론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는 가치적 차원의 공연을 기획 및 제작, 생계유지 문제 해결, 시범공연 홍보에 집중해야 하며, 시범 경기문화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 및 집단 확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태권도 시범문화, 문화변천, 공연문화, 경기문화

I. 서론

태권도 시범은 지금껏 태권도가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써 가지는 단순한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문화상품으로 역할을 하는 중추적 매개체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자 하였다(Lee, 2022). 하지만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권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오랜 기간 굳어진 획일화된 시범으로는 사람들의 높아진 눈높이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태권도 시범이 가진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공연화를 시도하며 태권도가 대중 속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였다(Kwak, 2012). 최

근의 태권도 시범공연은 태권도 기관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공 학과, 사설 단체까지 확산되어 문화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Park, 2013). 점프, 태권무무 달하, 신화, 탈 등 태권도를 소재로 한 공연을 통해 기존 시범의 틀을 깨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태권도 시범의 공연 예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태권도 시범은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공연의 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무대예술의 각종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시범의 공연으로의 발전을 통해 태권도가 가진 스포츠적 가치, 문화 예술적 가치, 전통 문화적 가치를 재차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으며, 공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태권도와 접목함으로써 태권도 활용의 다양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Park & Jeon, 2011). 이러한 태권도 시범 공연화는 1980년 후반 범기철의 ‘태권무’ 공연이 처음 선보여지며(Choi, 2011) 대중들에게 태권도 겨루기 이외에도 새로운 장르가 있는 것을 알릴

본 연구는 이승진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jjw6267@khu.ac.kr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이어받아 1992년 품새, 격파, 태권체조, 호신술 등을 대회 종목으로 한 제1회 태권도한마당(現 세계태권도한마당)이 개최되었다. 태권도한마당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국기원은 2015년부터 태권도 시범인구가 가장 주목하는 팀 대항 종합경연에서 공연의 작품성 배점을 추가하였고(Kukkiwon, 2015), 공연예술의 한 축인 스토리를 추가함으로써 태권도 시범의 공연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태권도 한마당과 같은 태권도 시범 경연 종목은 실업태권도연맹의 파격 실험(Shin, 2008.06.24.)과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의 위력 및 기술격파의 개설(Kim, 2009.07.10.) 등 꾸준한 시도가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태권도 인재 양성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희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각 대학에서는 대학 주관의 태권도 대회에서 시범 및 격파 부문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입상자들에게 대학 입시 특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각 기관 및 대학의 대회 신설로 이어졌으며, 입상성적이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범선수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8).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시범의 의미와 요소를 되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태권도 시범은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통제되지 않은 변화는 태권도 시범에 혼돈을 가져오거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태권도 시범의 문화현상을 분석적이고 반성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는 항상 변해 가고 있다. 국가 혹은 집단이 가진 문화를 축적하고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문화가 불과 1년, 10년 전의 문화와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감을 느끼며 매일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살아간다. 결국 오랜 기간 유지된 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문화는 꾸준히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왔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다(Park, 1998).

그렇다면 태권도 시범문화란 태권도 시범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생각, 행동, 언어 등을 포함한 행동양식 전반에 관한 것(Kwon, 2017)이라 할 때, 태권도 시범문화 그 안에 내포된 본질과 체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매 순간 변화되는 태권도 시범문화를 이해하고자 관련 연구 또한 지속되고는 있으나 그 구성과

체계에 대한 이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태권도 시범문화의 각 영역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총체적인 개념의 연구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태권도 시범의 문화가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태권도 시범문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매크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시범문화의 흐름을 통해 시범문화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 내포된 주요 요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 시범문화가 가진 지속 성장 가능성 전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태권도 시범문화 형성과 변화를 포함한 시범의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태권도 시범문화의 지속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Ⅱ. 태권도 시범문화의 특성과 변천

1. 태권도 시범문화의 요소와 범주

태권도 시범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 시범과 관련한 문헌에서 태권도 시범과 관련한 단어를 도출, 그 용어의 의미들을 분석하였다.

태권도 시범문화의 요소를 살펴보면 태권도의 동작을 몸으로써 표현하고 관람자에게 시연하는 목적의 고유 용어와 기존의 태권도 시범에서 진화의 형태를 지닌 공연용어 무대 용어 등이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 시범 경연 및 격파대회 경기규칙, 기술 명칭 등이 나타났다. 이때 기존에 존재하는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타 무술 혹은 체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빌려 태권도 시범문화의 용어가 넓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태권도 시범문화의 변천 과정

태권도 시범문화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시기별로 나타난 변천에서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태권도 시범의 변천 과정은 태권도 기술체계의 모음인 품새와 대인 수련 형태의 겨루기, 태권도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위력격파와 태권도 손, 발기술의 정수를 표현한 고공 격파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 시범 단계에서 다각적으로 놓인 여러 개의 격파물을 격파하는 채공 다단 격파, 회전을 이용하여 다수의 격파물을 격파하는 회전격파, 음악과 어우러진 태권체조, 태권도 기본 기술의 호신 능력을 표현한 호신술 등으로 구성된 현대식 시범으로 이어졌다(Kwak, 2012). 현재에는 태권도 시범단이 직접 제작한 음악을 이용하여 극한의 동작과 스토리, 의상과 조명 등을 추가한 시범의 공연화, 태권도 시범 경연 및 격파대회의 입상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시범 및 격파의 경기화까지 현재까지의 시범을 말할 수 있다(Lee, 2022).

따라서 매크로 관점에서 태권도 시범문화 연구는 이와 같은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앞서 분석한 태권도 시범문화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가치관의 확장, 둘째, 제도적 기틀 마련, 셋째, 기술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1) 가치관 확대

가치관이란 인간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본인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 가지는 근본적 태도이자 평가의 개념이다. 즉 태권도 시범의 가치란 태권도 시범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가치를 입증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의 기본 목적을 타인에게 동작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의 진면목을 관중에게 보인다는 것이다(Choi, 1994). 이 같은 목적으로 1959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의 해외 파견이 시작되었으며(Jang, 2016) 1970년에 본격적인 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태권도가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물론 태권도 시범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Kwon, Gwon & Kwon, 2018). 이처럼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동포들에게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하나의 계기로써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

국기원 40년사에 따르면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순방 이후 회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줄을 이었으며, 각 나라에서는 태권도 교육을 위한 한국인 사범 파견 요청이 쇄도하였다고 한다(Kukkiwon, 2012). 태권도 시범단의 이러한 활동은 대륙별 경기, 올림픽 등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정식 종목 채택 등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처럼 태권도 세계화의 한 축이었던 태권도 시범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들과의 협업을 통해 태권도 시범을 예술적 작품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Jeoung, Kim & Kwak, 2012). 이는 태권도의 안정적인 세계화 이후 태권도 시범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태권도 시범으로 재창조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중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인정받음으로써 실제적 시범의 개념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전제로 한 태권도 시범 공연 장르로의 재탄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제도적 기반 확충

문화가 변한다는 것은 곧 본인이 속한 사회의 관계와 그 안의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m, 2006). 즉 태권도 시범문화가 변화하는 것은 태권도의 사회적 상황과 태권도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의 형태가 자리 잡고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행해져 오던 전통 태권도 시범의 형태에서 공연 예술적 요소와 태권도 시범을 접목한 태권도 공연예술 지향 및 태권도 시범 종목의 경기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먼저 태권도 시범 공연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 국방부 주도의 국군태권도시범단 창설 및 파견과 국기원 대표 시범단 창단을 한 획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정적 계기는 정부 차원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지원된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정책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정책과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이다. 중앙정부는 태권도 시범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권도에 대한 진흥정책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이는 태권도가 제도권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각 정부의 체육진흥정책 시행 과정들은 태권도 시범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사회적 흐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시범은 해외 파견과 태권도 보급 세미나 등을 통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그 역할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태권도의 문화산업 발전과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태권도 시범의 문화 콘텐츠화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전통 시범이라는 범주에서 공연예술로의 가치 확장은 물론 수단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에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의 형성은 필연적이었으며, 태권도 시범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의 변화는 지

속적인 발전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속에서 태권도 기관은 시범 공연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 공연지원 및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정리되지 않던 시범, 격파대회의 선수, 지도자, 심판의 제도적 규제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초·중·고교 격파선수들의 실적을 관리하여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와 전문 시범 및 격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Choi, 2022).

3) 다양해진 시범 요소

태권도 시범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범에서 행해지는 각 요소의 발전 또한 필요하며, 각 요소들이 가진 태권도의 특성은 저마다의 형태를 유지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태권도 시범의 기술들은 기존의 태권도 기술을 본래의 의미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음악, 의상, 소품의 이용이나 용품의 변화는 태권도 시범기술의 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권도 시범 프로그램은 태권도의 각 요소를 표현하거나 기술들을 체계적인 형태로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1980-90년대 태권도 시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겨루기였다. 이는 경기 종목으로서 태권도의 박진감과 화려함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으로 태권도 경기의 우수성과 무도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태권도 겨루기가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창작 품새, 태권체조, 호신술에 각종 의상은 물론 음악과 간단한 스토리를 추가하는 등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한 한 번 도약하여 여러 개의 격파물을 격파하는 고공 격파와 보다 많은 회전각을 이용하는 회전격파, 장애물을 딛고 긴 체공시간으로 더 높거나 더 많은 격파물을 격파하는 기술격파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태권도 시범에서 격파의 기술 응용은 태권도 시범의 독자적인 격파 기술의 영역을 구축하였다(Kwon, 2017).

현대에 이르러 전반적인 태권도 시범 형태는 공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형식 안에서 태권도 시범의 요소들을 표현해내고 있으며 이는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태권도 시범의 사회로부터의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3. 태권도 시범의 주요 문화

1)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의 모든 것을 몸으로 표현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적 단계까지 발전시킨 것으로, 결국 태권도 시범이 가진 가치는 태권도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 시연자의 정신적인 면을 보여줌으로써 심미적, 철학적 요소를 통해 태권도를 미적가치의 대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다(Jang, 2002).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기관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대학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며 태권도 시범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였으나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소속의 태권도 시범단은 자체적인 색깔을 띠기 위해 경쟁적 구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기존에 시범의 범주를 벗어나 타 장르 간 영역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융·복합 흐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태권도와 공연 예술적 요소들이 합쳐진 태권도 시범 공연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Lee, Jeoung, 2017). 공연예술은 무대와 같은 장소 위에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를 신체로써 표현하는 행위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우, 관객, 장소 그리고 소재의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Jeon, 2003). 이러한 공연예술과 태권도 시범의 만남을 통해 탄생한 태권도 시범 공연은 태권도의 요소별 단순 시연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발전되어가는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 속에서도 태권도 시범 공연에 대한 가치가 바람직한 방향만을 제시하는가에 대해 양면성이 나타난다.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흐름 속에 태권도의 예술성을 알리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목적의 공연예술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예술의 부로써 수단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Kwak, 2012). 이는 태권도 주제의 스토리텔링 공연이 되어야 진정 태권도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태권도의 무도 가치적 측면과 경제적 수익을 통해 흥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 존폐 위기가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연예술 문화 산업적 측면이 가진 이질적 특성의 대립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그간 태권도 시범 공연들이 일회성에 그친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태권도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무도적 성향과 태권도 기술에 치우쳐진 스토리 전개는 결국 관객의 외

면을 받는 이유가 되며, 경제적 이익의 목적을 무시한 태권도 시범 공연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태권도의 공연 예술적 가치를 발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

태권도 시범 경기는 태권도 경기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태권도 시범에 새로운 경기문화를 일으키고자 시도되었다. 2022년 KTA의 격파 종목 공식 승인을 비롯하여 각 기관 및 단체 주관의 태권도 시범경연대회 개최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태권도 시범 경기화에 대한 양상이 두드러지기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시범의 공연 예술화로 인한 시범 공연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전의 형태로 비교적 정량화가 가능한 격파 위주의 경기 형태와 공연 예술적 요소를 추가한 경연 위주의 시범경연대회 형태로 분화되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Kim, 2018).

시범 경연 위주의 대회들은 자체적인 경기 규정과 나름의 운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KTA 공식 승인 대회의 경우 동일한 경기 규정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상 실정을 통해 대학 입학의 기회가 열려 있다(Jang, Kim, 2019). 이는 겨루기, 품새에 이어 시범 또한 입상실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으로 이 같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발전, 집단으로의 소속감, 사회적 계층 이동 등을 통해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는 발전하고 있다.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의 발전은 대학 내 시범 전공자 및 학생 선수들의 증가로 시범 및 격파 전문도장이 생겨나는 등 태권도 시범인구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회의 양상을 띠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힘과 정확성을 강조한 기존의 시범기술보다 입상을 위해 난도가 높은 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빠른 회전격파, 높은 던고 격파 기술, 간격의 정도가 넓은 도약 격파 기술 등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태권도 시범 및 격파 경기에서는 입상을 위해 난도 높은 신기술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의 시연 속 부상에서 나타나는 선수들의 부상 대처 방안들은 선수들을 지켜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Jeong, Jeon, 2021).

태권도 시범 경기화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의 신체 소외 현상 등은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 선수들의 경쟁 과정에서의 고난도 기술격파로 인한 선수들의 운동 상해 문제(Lee, shin, 2014)와 부상 방지를 위한 보강 및 재활훈련 등 직접적으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Heo, Lee & Han, 2019).

지도법의 경우 단체의 존립 목적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목적을 두어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태권도 시범단 교육은 시범 공연화를 위한 각종 요소의 교육이 대두되는 한편 대회 입상을 위한 격파 기술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속 선수들의 다수 입상을 경험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시범단을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요소들과 단체로서 시범에 임하는 협동심 등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학생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대회 입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다 보니 새롭게 생겨나는 시범 및 격파 전문도장을 포함한 태권도 시범 지도법이 격파에만 치우쳐져 발전하고 있으며 격파 위주의 시범단을 지도하는 실정이라 하였다(Park, 2021). 이 같은 문제는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 선수들이 부상을 경험하여 선수로서의 신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범기술 수행에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칫 태권도계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III. 태권도 시범문화의 지속 성장 전략

1.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의 지속 성장 전략

태권도의 기술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조직된 시범단은 변화하는 태권도 문화 속에서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정통 시범이라는 가치를 포함한 퍼포먼스 형식의 시범 공연으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으로 인한 태권도 인구 확대는 태권도 시범단 창단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다양한 시범단이 생기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 시범 공연에 대한 움직임은 국기원 주관의 '2003 세계 태권도 무예 대회'에서 음향, 의상, 도구를 활용하여 연출성과 창작성을 채점 기준으로 둔 '팀 대항 종합경연'이 태권도 시범 공연의 문화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다(Kim, Yang, 2017).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지나 태권도가 주체가

되어 ‘극’의 요소가 가미된 태권도 시범 공연 작품이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공연예술 형태의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태권도 시범 공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 먼저, 태권도 시범 공연의 가치적 차원에서 공연을 기획 및 제작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태권도 시범의 본질을 위해 태권도만을 부각하고 태권도 시범의 요소 중 격파 위주의 형태로 시범 공연이 제작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처럼 지극히 태권도인들의 기준에서 제작된 태권도 시범 공연은 태권도와 관련된 관객 밖 이외에 공연장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연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을 위한 전문가와 협업, 태권도 시범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공연연출가의 부재 등이 결국 태권도 공연 제작과정에서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Lee, Jeoung, 2017). 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연의 ‘극적 긴장감’이나 슬픔, 환호와 같은 감정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음악을 많은 시범단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시범 공연에 사용하고 있으며, 시범 공연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극의 흐름을 태권도로만 표현해내기 때문에 장르가 한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태권도 시범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공연예술적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권도 시범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전문 연출가와의 접촉, 태권도 소재 공연의 방향 이해 등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시범 공연의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통한 생계유지의 문제이다. 단원들이 겪는 금전적 어려움은 결국 태권도 시범 공연의 관중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시범 공연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시범 공연의 발전을 위해 전문 배우의 양성, 근로계약서 작성 등 태권도 시범단원들이 갖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발전이 될 것이다(Lee, 2019). 물론 태권도 시범 공연이 세계적인 뮤지컬, 오페라처럼 발전된 상태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예술 산업은 경제적 효용가치의 유무가 관건으로 현재 태권도 시범 공연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객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 배우들을 교육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내기 위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적 차원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위한 공모사업과, 스토리와 연출 내용까지 심사가 가능한 태권도 시범 공연대회가 다수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 시범단에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를 보유

하고 있을 때 금전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 속에서 시범 공연을 제작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를 유사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 공연의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이다. 무대 공연의 경우 마스크를 비롯한 대중성을 가진 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 시범 공연이 각종 마스크에서 다룰 만큼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태권도 시범 공연에 메이저급 배우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슈가 되기 어렵다. 물론 SNS 홍보는 현재에 주를 이루는 홍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태권도인들의 인프라 한계에 부딪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전달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시범 공연에 유명 연예인 등 마스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닌버벌 퍼포먼스로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대사와 노래와 같은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2.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의 지속 성장 전략

태권도 시범의 경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스포츠란 인간의 놀이와 게임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경쟁적인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Lim, B. J. (1994)'는 스포츠와 스포츠 유사 개념과의 정의를 구분하기 위해 고려할 쟁점은 첫째, 스포츠는 어떠한 활동 형태에 속하는가?, 둘째, 스포츠는 어떠한 조건에 의존하는 활동인가?, 셋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주관적 성향은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또한 활동 형태로서 신체적·비신체적 형태, 단순복합 형태, 활동적·비활동적 형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신체활동이 스포츠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경쟁적 신체활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제도화란, 스포츠 경기의 표준화된 규칙이 있어야 하며 공인된 기관에 의해 규칙이 시행되어야 하고 경기 기능의 학습이 형식화된 것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스포츠란 “표준화된 조건을 가지고 공인된 경기 규정을 통해 대결하는 신체적 경쟁 활동”인 것이다(Lim, 1994).

한편,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의 흐름 바꾸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심판의 역할이다. 특히 태권도 시범 및 격파 경기는 스포츠 가운데에서도 신체를 통해 기술을 표현하는 형식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태권도 시범 및 격파 경기에서 심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역할은 경기를 결정지을 정도의 절대적 영향력을 선사한다. 이처럼 심판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심판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공정히 행하도록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선수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Lee, Heo, Kim, 2019).

제도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기준은 규칙, 심판과 함께 지도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다. 현재 태권도 현장의 전문지도자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태권도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은 실기와 구술에서 겨루기/폼새에 대한 영역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범 및 격파 전문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의 착지 매트 사용 문제이다. 선수들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착지 매트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기술 시연 시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숙련도 부족의 요인이 큰 것이고, 숙련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 기술을 구사한다는 것(Lee, Heo, Kim, 2019)은 계층 이동을 위해서 신체 소외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을 끌어올려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목적이 있지만, 선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 단순히 태권도 시범 경기에서 착지 매트를 허가해준다는 것을 자칫 미완성된 기술에 대해 우연을 기대하며 출전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욕심으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지기술 제한과 매트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태권도 시범문화는 경기화 과정에서 공인된 규칙과 형식에 따라 경기를 치러 스포츠 경기 측면으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각종 대회가 지속해서 개최되고 동시에 국내·외를 막론한 종목의 홍보와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기관이나 조직, 집단이 확대되고 선수 간 경쟁을 포함한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IV. 결 론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가 전 세계인에게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역할로써 책임을 다하여 왔으며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전하여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태권도 시범의 발전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태권도 시범이 가진 문화의 현재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태권도 시범문화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파악하여 태권도 시범문화의 지속적 성장 가능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권도 시범에 관한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집단과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권도 시범의 구성요소와 범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 시범의 문화적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의 확대이다. 태권도 시범단의 다양한 활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지는 데 일조하였다. 이 같은 태권도의 세계화 이후 태권도 시범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 재창조된 태권도 시범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에게 다가가고자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문화들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태권도 기술의 미적가치를 높이고 다양성을 추가하며 태권도 시범을 하나의 예술성을 가진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제도적 기반 확충이다. 태권도 시범의 제도화는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정책 및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정부는 태권도 시범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권도에 대한 진흥정책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이는 태권도가 제도권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다. 정부에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와 진흥양상을 비추어 볼 때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 형성은 필연적이었으며, 태권도 시범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의 변화는 지속적인 발전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양해진 시범 요소이다. 태권도 시범의 기술들은 기존의 태권도 기술을 본래의 의미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음악, 의상, 소품의 이용 및 용품의 변화는 태권도 시범기술의 진화를 가져왔다. 현재의 태권도 시범 형태는 공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형식 안에서 태권도 시범의 요소들을 표현해내고 있으며 이는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태권도 시범의 사회로부터의 요구였다.

태권도 시범문화의 구성요소와 문화의 흐름 안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권도 시범문화의 주요 영역들이 존재한다. 첫째,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이다. 태권도 시범은 기존에 시범의 범주를 벗어나 타 장르 간 영역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융·복합 흐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연예술과 태권도 시범의 만남을 통해 탄생한 태권도 시범 공연은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

다. 하지만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의 발전과정 속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에 대한 가치가 바람직한 방향만을 제시하는가에 대해 양면성이 나타났다. 태권도 정신이 깃든 태권도의 예술성을 알리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목적의 공연예술 형태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흐름이라는 예술의 부로써 수단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이다. 태권도의 새로운 경기 문화를 시도하기 위해 수많은 시범 및 격파대회가 시도되었으며 태권도 시범 경기화에 대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권도 시범의 공연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전의 형태로 비교적 정량화가 가능한 격파 위주의 경기 형태와 공연 예술적 요소를 추가한 경연 위주의 시범경연대회 형태로 분화되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의 발전은 대학 내 전공자 증가 및 학생 선수들의 증가를 통한 시범 및 격파 전문도장 생성 등 시범 인구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회의 양상을 띠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입상을 위한 난도 높은 기술들은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선수들의 부상 대처 방안으로는 선수들을 지켜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 시범단 교육이 대회 입상을 위한 격파 기술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 등은 태권도 시범을 위한 시범단이 아닌 격파 위주의 시범단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태권도 시범문화의 지속 성장 전략 방안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시범 공연문화의 지속 성장 전략이다. 먼저, 가치적 차원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와 관련하여 태권도 시범 공연을 통한 생계유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의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의 지속 성장 전략이다. 태권도 시범이 안정적인 경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할 경기규칙, 심판과 함께 지도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으며, 시범 전문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이에 대한 기관이나 조직, 집단이 확대되어 선수 간 경쟁과 함께 태권도 시범 경기문화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References

- Choi, C. K. (2022). *Characteristic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search for cultural change of Taekwondo demonstratio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Choi, K. K. (2011). *The History of Taekwondo Demonstration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Choi, Y. R. (1994). *Taekwondo demonstration theory*. Seoul: Bogyong Munhwasa.
- Heo, J. S., Lee, Y. J. & Han, S. Y. (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oblems in Injuries of University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Members. *The Korea Journal of Sport*, 17(2), 891-900.
- Jang, K. & Kim, J. S. (2019) Time Series Trends in the Change of Competition Rules in Taekwondo Technical Breaking : Targeting Technical Breaking. *The Korea Journal of Sport*, 17(4), 1197-1208.
- Jang, K. (2016). The Study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Appeared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7(2), 1-20.
- Jang, K. (2002). *Taekwondo demonstration practice*. Seoul: Eomungak.
- Jeon, S. H. (2003). *performance planning*.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Jeong, J. H. & Jeon, J. W. (2021). A Study on the Explo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Injury of Students in Taekwondo demonstration contest.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2(1), 107-124.
- Jeoung, J. H., Kim, J. H. & Kwak, T. Y. (2012). Research for the Title Identity of Korean National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Philosophy of Mo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and Martial Arts*, 20(3), 1-12
- Kim, B. K. (2009.07.10.). 춘천오픈 국제태권도 오늘 개막.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701&aic=209070900134>
- Kim, K. D. & Yang, D. S. (2017). A Proposal for Settlement of Hallyu(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of Taekwondo Performanc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6(5), 21-30.
- Kim, S. W. (2006). *Concept-oriented sociology*. Seoul: hanul.
- Kim, Y. J. (2018). *Status of Taekwondo Demonstration Competitions and Development Pla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Kukkiwon (2012).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Kukkiwon 40 years of history: Since 1972. Seoul: Kukkiwon.

- Kukkiwon, (2015). *World Taekwondo Hanmadang rule*. Seoul: Kukkiwon.
- Kwak, T. Y. (2012).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ities on Taekwondo Demonstration as a Performance Art*.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Kwon, G. S. (2017). *Changes in the Korean Taekwondo Demonstration Systems: Focused on Social Systems theory of Luhman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Kwon, K. S. & Gwon, H. S. (2017).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as a New Hallyu Content: Exploring Success Factors for Globalization.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8(4), 147-170.
- Kwon, K. S., Gwon, H. S. & Kwon, G. M. (2018). Nationalism Manifested in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9(2), 27-41.
- Lee, H. S. (2019).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kukkiwon demo tea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Lee, S. J. & Jeoung, J. H. (2017). A Study on the Effects Collaboration in Taekwondo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5(1), 601-610.
- Lee, S. J. (2022).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search for development directions according to cultural changes in Taekwondo demonstration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Lee, Y. J. & Shin, M. Y. (2014). A Study on the Sports Injuries of University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5(1), 119-138.
- Lee, Y. J., Heo, J. S. & Kim, K. N. (2019). Thesis on Problem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Taekwondo Demonstration Competition Sponsored by Presidents of Universitie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8(4), 147-170.
- Lim, B. J. (1994). *Introduction to sports sociology*. Seoul: DongHwa Publishing.
- Park, D. Y. (2013). *A study on the performance direction value in the Taekwondo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Park, J. Y. (1998). Japanese culture and art. Seoul: Hannuri Media.
- Park, S. W. (2021). *Perception of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Coach on Crashing Oriente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Park, T. S. & Jeon, I. K. (2011). A Study on Taekwondo Performance for Sightseeing.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23(7), 429-447.
- Shin, J. C. (2008.06.24.). 태권도 파격실험, 선수 아닌 팬을 위한 무대로. 무카스. <https://mookas.com/news/6707>

Trend of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and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Growth

Lee, Seung-Jin¹ · Jeon, Jeong-Woo^{2*}

1. Kyunghee University, Doctor 2.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nstration culture through the flow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and to derive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potential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Method Various literatures on Taekwondo demonstration were analyzed and analyzed, and conclusions were drawn by synthesizing expert opinion surveys.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mponents and categories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the results of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in the cultural transition process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values, second, the expansion of the institutional base, and third, the diversified demonstration elements. The main areas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components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flow of culture were the Taekwondo demonstration performance culture and the Taekwondo demonstration competition culture.

Conclusion Taekwondo demonstration performance culture should focus on planning and producing value-oriented performances, solving livelihood problems, and promoting demonstration performances, and demonstration competition culture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change and group expansion.

Keywords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cultural change, performance culture, competition culture

논문투고일: 2022.08.01.

논문심사일: 2022.08.31.

심사완료일: 2022.09.22.

논문발간일: 2022.09.30.